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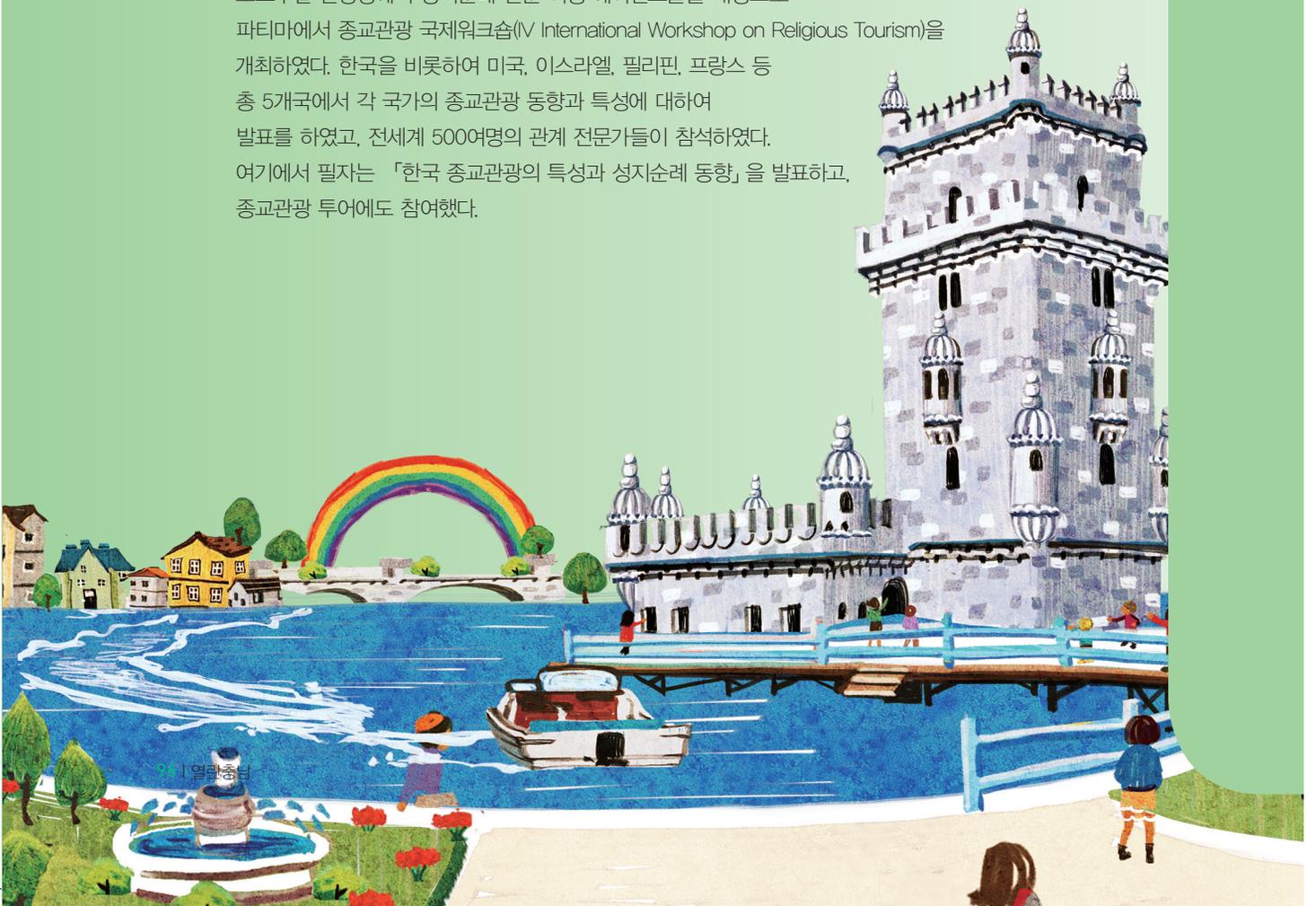


해외 리포트

종교관광의 명소, 포르투갈 '파티마'

이인배 _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르투갈 관광청에서 성지순례 전문 여행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파티마에서 종교관광 국제워크숍(IV International Workshop on Religious Tourism)을 개최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이스라엘, 필리핀, 프랑스 등 총 5개국에서 각 국가의 종교관광 동향과 특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전세계 50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성지순례 동향」을 발표하고, 종교관광 투어에도 참여했다.





ACISO Associação Empresarial Ourém Fátima 종교관광 국제워크숍 발표자들

1. 포르투갈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 (IV International Workshop on Religious Tourism)

1) 포르투갈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 개최 개요

2014년 충남의 솔피성지와 해미읍성 성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의 천주교 성지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계기가 되어 포르투갈의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포르투갈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에 발표자로 초청을 받아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파티마와 중부권 관광도시 관광지를 방문하였다.

「포르투갈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은 이번이 4회째로 카톨릭 성지인 파티마에서 전 세계의 종교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포르투갈 관광청과 중부권 관광청, 지역관광협회와 관광사업체(호텔과 식당 등) 등 포르투갈 및 세계 각국의 종교관광 관련 여행사와 카톨릭신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형 국제행사이다. 이 행사의 주관은 포르투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사업체 등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를 하였다. 이는 단순히 종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류행사가 아닌 파티마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이를 거점으로 포르투갈 국가차원에서 관광수입을 창출 위한 글로벌 국제종교관광 행사였다.

2)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 행사 내용

「파티마 종교관광 국제워크숍」에서는 1부 개회식과 2부 21세기 종교관광의 동향 워크숍, 3부에서는 관광사업체별 B2B상담과 정보교류 및 예비계약 등이 이루어졌다.

1부 개회식에서는 포르투갈 관광청 차관, 파티마 대주교와 포르투갈 중부관광청장, 파티마 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2017년 성모마리아 발현 100주년 기념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100주년의 주요행사는 파티마 성지순례에 초점을 맞추고 성지순례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성모마리아 관련 행사와 뮤지컬 등 종교와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융합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와 문화, 관광, 예술 등 관련 분야의 다채로운 학술행사 및 이벤트와 함께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 종교관광의 순례객과 일반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부에서는 제1주제로 한국 발표자로서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성지순례 동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의 종교관광 성향 및 천주교 종교자원의 현황과 특성, 충남 천주교 성지순례자원 현황과 관광성향, 시사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제2주제는 Guillermina Tapia Gabor(APP Tours)의 필리핀 천주교의 역사와 성지관광객들의 관광성향, 미래 종교관광의 변화 동향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는 Yoosi Hayat(Vered Hasharon)의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역사와 75% 정도를 차지하는 종교관광의 동향과 외국인 종교관광객에 대한 패턴을 설명하였다. 제4주제는 Anne Breslin(Great Experiences)의 미국인의 종교관광 성향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

aciso ACISO Associação Empresarial Ourém Fátima

IV Workshop Internacional de Turismo Religioso superou as expectativas, com mais de 500 participantes!
Decorreu ontem, 26 de fevereiro, o IV Workshop Internacional de Turismo Religioso, dividido por vários locais da cidade de Fátima. A Sessão de Abertura foi introduzida pelo Vice Presidente da ACISO, Alexandre Marto, em representação do Presidente, Francisco Vieira, ausente por motivos de força maior, e contou com o Reitor do Santuário de Fátima, Pe. Carlos Cabecinhas, o Presidente do Turismo do Centro, Pedro Machado, e o Presidente do Município de Ourém, Paulo Fonseca.
Seguiram-se a conferência "Fátima 2017. Comemoração do Centenário das Aparições", pelo Rector do Santuário de Fátima, e o painel "Turismo Religioso: o perfil do turista do século XXI", com oradores internacionais - Guillermina Tapia Gabor (Filipinas), Yossi Hayat (Israel), Anne Breslin (EUA), Monseigneur Xavier d'Arrodes (França), Prof. Lee In Bae (Coreia do Sul) - moderados por Frederico Costa, presidente da Visabeira Turismo.
Os trabalhos foram encerrados pela Secretária de Estado do Turismo, Ana Mendes Godinho, realçando que "Fátima é inquestionável no contexto do Turismo em Portugal".
Da parte da tarde desenrolou-se a Bolsa de Contactos, as reuniões só entre os diversos profissionais do setor - os 116 operadores turísticos internacionais (hosted buyers) e as 115 empresas, maioritariamente nacionais mas também com unidades provenientes de Espanha, França e Itália, o que denota já a importância internacional deste evento!
À noite decorreu o jantar de encerramento, no Mercado de Sant'Ana, em Leiria.



ACISO Associação Empresarial Ourém Fátima 행사 발표장면



포르투갈 관광청 차관 축사사진



행사주관자 기념촬영



2017 성모마리아 발현 100주년 행사설명



B2B 행사장 사진

지관광 상품개발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하여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제5주제에서 Monseigneur Xavier d'Arrodes(Sanctuary of Lourdes) 프랑스 신부는 성지관광에 있어서 마음가짐 자세로서 교감과 교류·교육에 대한 것과 상호공유와 신뢰, 젊음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워크숍 발표는 학자, 연구자, 여행사운영자, 신부 등 종교관광과 관련된 5개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세계의 종교관광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3부에서는 B2B(One to One Meetings)로 파티마를 포함한 포르투갈에서 108개 업체, 세계 각국에서 115개 업체 등 223개의 종교관광 관련 사업체와 전문가들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세네갈 등 전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였으며, 사업체는 항공사와 여행버스, 여행사와 호텔(숙박), 레스토랑(음식), 관광지개발업체, 천주교 신부 등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조건이 적합할 경우 계약으로 이어지는 실속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했던 점은 성지순례와 관련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워크숍에 참여한 신부들도 상담과 정보교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성지순례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성모마리아 발현 세계 3대 성지 파티마 종교관광

1) 「파티마」(Fatima) 카톨릭 성지

이번 국제워크숍이 개최된 포르투갈 「파티마」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프랑스의 루르드와 함께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로 알려진 종교관광도시이다. 파티마 성지는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3일에 여섯 번에 걸쳐 세 명의 목동 앞에 성모마리아가 발현하면서 순례지로 알려졌고, 1930년에 성모발현지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순례 여행지로서 특히 성모 발현일인 매년 5월 13일과 10월 13일에 전후해서는 200여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파티마」는 성지관광도시로서 인구 7천여명의 작은 소도시이지만 수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호텔과 식당, 성물 기념품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지관광객들에 의해 도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았다.



파티마 로사리오 성모대성당



파티마 대성당 광장



성삼위성당 내부



성삼위성당 입구 한글표기



파티마 소성당



성물 관련 기념품

더불어, 파티마에는 성지관광도시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성모마리아의 발현장소와 이를 목격한 세 목동이 살았던 생가마을이 있다. 세 목동의 생가마을은 파티마 근교마을로서 이미 전 세계인들이 방문을 하는 성지관광지로 성모마리아를 목격한 발현 장소와 세 목동의 생가지가 그 당시 생활을 하던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성모마리아 발현장소



세 명의 목동



세 목동 중 LUCIA

「성모마리아 발현 세 목동의」 생가마을 방문



이 마을 역시 거리마다 성물을 포함한 기념품과 관광객들을 위한 상점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어 성지관광지로서의 편안한 느낌을 즐길 수 있었다. 이외에도 파티마에는 성지관광객을 위한 성모마리아 발현을 주제로 하는 파티마미라클박물관(Fatima Miracle Museum)과 예수생애박물관(Life of Christ Museum) 등이 시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2) 파티마 주변의 관광지과 관광도시들

세계문화유산인 바탈라 수도원(Monastery of Batalha)을 방문하였다. 바탈라 수도원은 포르투갈 레이리아주 레이리아시(市)에서 남쪽으로 13km 떨어진 소나무숲이 펼쳐진 분지에 있었다. 이어서 카스티야 왕국(Crown of Castle)과의 알주바로타 전쟁(Battle of Aljubarrota)에 대한 영상과 지역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전쟁기록관(Center of the Battle of Aljubarrota(S. Jorge))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Mira d' Aire Caves라는 석회암 동굴관광명소로 알려진 동굴내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이 이루어졌다.



바탈라수도원 전경



Mira d' Aire Caves 내부



알주바로타 전쟁기록관 그림

3. 포르투갈 중부관광권의 팸투어

1) 중부 관광권의 다양한 관광지 방문

종교관광 국제워크숍과 파티마 성지관광 및 주변 도시지역의 관광지 방문일정을 마치고 28일부터는 포르투갈의 중부관광권을 관광하였다. 포르투갈은 해양국가로서 대구잡이의 강국답게 대구와 관련된 해양박물관(Ilhavo Maritime Museum time Museum)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어 이를 첫 번째로 방문하였다. 여기에서는 포르투갈의 대구잡이 역사와 산업, 전통적인 선박전시관, 대구수족관 등을 관람 하였다.



해양(대구)박물관



해양(대구)박물관 대구수족관



Costa Nova Beach해안사구



Costa Nova Beach해수욕장



해변 관광거리 물고기상징물



해변 리모델링 관광거리

「중부관광권」의 주요 관광자원들 모습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해양관광도시의 해변(Costa Nova Beach)을 방문하였다. 이 관광도시는 여름철 해양관광거점으로 마리너시설과 해변 관광거리 및 잘 보존된 해안사구를 배경으로 한 해수욕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대구라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화와 해양관광도시로서 사구를 보존하면서 해변을 관광자원화하며 기존 쇠퇴해가는 상가거리를 재생시켜 관광거리로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는 점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2) 호텔과 종교관광, 도자기 공장 및 쇼핑 등의 융복합 체류관광

포르투갈의 중부관광권에서 체류를 하게 된 숙박지가 Montebelo vista Alegre Ilhavo Hotel이다. 이 호텔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으며, 전통시설과 현대시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다. 숙박과 건강관리시설, 성당 및 종교시설, 도자기 및 유리공장과 관람, 쇼핑시설 등이 융복합된 체류관광지구로 계획되고 건립된 것이다.

Montebelo vista Alegre호텔은 입지적으로도 중소도시의 외곽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바로 인접하여 기존의 오랜 성당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통적인 도자기 및 유리공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호텔의 내부에도 이 지역의 성곽에서 출토된 벽돌과 건물 조각을 활용하여 노출콘크리트로 건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1800년대에 이용하던 약수터를 재생하여 호텔의 로비와 연결시켜 옛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호텔의 로비와 복도, 휴식공간, 호텔방과 회의실 등에 도자기 및 도자기 석고 틀 등과 도자기 타일로 장식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전통특산물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호텔의 공간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을뿐만 아니라 호텔방과 회의시설 및 휴식시설들이 기능적으로도 현대부터 전통적인 시설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호텔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전통적 시설부터 현대적 시설까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규모에서도 일반룸과 스위트룸부터 가족룸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과 공간을 연결하여 바로 천주교 성당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호텔내부를 통해 천주교 실내를 관람할 수 있는 조망대가 있었다. 이 성당은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일행들이 좀 전에는 성당의 정문을 통해 입장하여 미사를 체험하였던 곳이었다. 이처럼 호텔 내부에서 입장하여 성당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전망을 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실내 수영장 및 스파시설과 미팅룸 겸 바를 설치하여 전통과 현대적 기능과 시설·공간이 함께하는 호텔서비스로써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었다.

더불어, 호텔과 인접해서는 천주교 성당과 인접하여 몇차례 전수되어 오는 대규모 도자기 공장 및 유리공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이 공장도 견학을 하였지만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호텔주변 농촌마을



호텔옆 천주교성당



도자기 공장입구



성곽벽돌 실내장식



호텔로비 도자기 장식



성당 미사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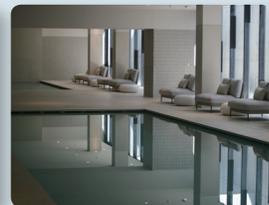
도자기 벽화



성당내부 모습



전통호텔식룸 도자기욕실



호텔 실내수영장

〈Montebelo vista Alegre 호텔모습〉

있어 눈으로만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출구 쪽에는 도자기와 유리로 제작된 기념품들이 다양하게 갖 추어져 공장을 견학하고 나온 관광객들이 용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관광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도자기 및 유리제품들의 특성들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릇과 소품들이 현대적인 이용수요에 맞는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어 실용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4. 시사점

이번 종교관광의 국제워크숍과 B2B, 성지관광 및 중부권 팸투어를 통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종교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관광단체, 관광사업자 등의 통합 노력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열린 제4회 종교관광 국제워크숍은 단순히 종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류 행사가 아닌 파티마지역과 포르투갈의 중부관광권, 포르투갈 전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포르투갈 국가차원에서 관광수입을 창출 위하여 통합적으로 노력을 집중한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② 성지의 성역화를 통한 천주교 신자와 일반관광객들의 관광목적지로서 유인력 제고

「파티마」는 성모마리아 발현지로 세계 3대 카톨릭 성지이다. 특히, 2017년은 성모마리아 발현 100주년으로 주요행사는 성지순례에 초점을 맞추고 성지 순례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성모마리아 관련 행사와 뮤지컬 등 종교행사와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융합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와 문화, 관광, 예술 등 관련 분야의 다채로운 학술행사와 이벤트와 함께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 종교관광의 순례객과 일반인 관광객을 위한 준비는 물론 전세계인의 관광의 목적지로서 유인력을 제고하고 있었다.

③ 종교관광자원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루트와 상품의 제공

국제 워크숍과 B2B프로그램 이후「파티마」의 주변도시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야간관광으로 성지순례지와 연계한 지역의 향토박물관과 역사유적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저녁만찬이 이루어졌는데 레이리아의 전통음식과 함께 공연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파티마성지에서 종교관광자원 이외에 주변지역과 연계한 역사와 문화, 토속음식과 공연을 관광상품화 하고 있었다.

더불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소도시의 수도원과 전쟁기록관 등도 방문을 하였으며, 자연관광명소로 석회암 동굴을 탐사하고, 동굴내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이색적인 경험도 하였다.



④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시 기반구축과 매력있는 지역 특색 관광자원의 개발과 상품화

포르투갈의 중부관광권에서는 해양국가로서 해양관광도시와 해변의 관광전용거리, 사구와 해수욕장, 수산물인 대구와 관련된 박물관과 전통음식 등 포르투갈과 세계의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 관광자원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박물관과 해안관광거리의 리모델링, 사구의 보존을 통한 해안경관의 보존 등을 통해 포르투갈의 중부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차별화해서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⑤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체류관광시설의 제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중부관광권의 관광자원 방문을 위하여 체류한 관광호텔은 그 동안에 단순히 숙박만을 위한 기능이 아닌 현대인들의 관광수요를 반영한 융복합의 체류관광시설을 제공하고 차별성 있는 관광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다.

이 호텔은 시설 및 공간과 기능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었으며, 전통과 현대시설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었다. 숙박과 건강관리시설, 성당 및 종교시설, 도자기 및 유리공장과 관람, 쇼핑시설 등이 융복합된 체류관광지구로 건립되어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위하여 준비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포르투갈 파티마에서는 세계적인 종교관광도시로서 공공과 민간, 지역거버넌스 등이 함께 하면서 성지 및 일반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불어 종교관광자원과 주변관광지와 관광도시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도시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체류관광시설과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도 종교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 하였다. ◀

〈참고자료〉

<http://bori.tistory.com/64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j4661&logNo=220598399703>